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칼의 아스피린

해열제의 대명사로 1백10여년 동안 인기정상을 달려온 아스피린.

이 약품도 순간 착상이 탄생시킨 발명품으로, 발명가를 세계굴지의 제약업체 수장으로 끌어올렸다.

발명가는 화학자였던 칼 도이스베르그. 1883년 가을, 칼은 청운의 꿈을 안고 바이엘 에르버펠트라는 물감회사를 설립했다.

그 무렵, 칼은 신문에서 안티피린이라는 해열제가 발명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실수에서 탄생한 안티피린’

신문의 기사제목은 칼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약품이 실수에서 탄생하다니?’

칼은 주의깊게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았다.

‘전부터 나프탈렌에 해열성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 젊은 의사가 개(犬)의 열을 내리게 하는데 나프탈렌을 써서 실험해 보려는 생각에서 약국을 찾았는데 주인의 실수로 에세트아닐리드를 구입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해열성능이 나프탈렌보다 좋아 이것에 힌트를 얻어 안티프린 이 탄생될 수 있었다.’

신문기사를 읽는 순간 칼은 자신의 공장에 있는 뜰이 생각났다. 거기에는 물감을 만들고 남은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던 것.

‘그 폐기물의 성분과 안티피린 원료의 성분이 매우 흡사한데! 그렇다면?’

칼은 버려질뻔 했던 폐기물이 보물처럼 귀한 원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회사내의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며칠동안 연구한 결과 안티피린보다도 성능이 뛰어난 해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칼은 페나세틴이나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고, 생산된 아스피린은 날개돋힌 듯 팔려나갔다.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해열제하면 아스피린일 정도가 되고 있다.

## 이다야 이와오의 걸끄러운 고무표면

세심한 관찰은 발명을 낳는다. ‘걸끄러운 고무표면’이란 아이디어 하나로 감부가 된 일본인 ‘이다야 이와오’가 좋은 예.

이다야는 작은 철공소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좀더 잘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했으나 생활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접시를 떨어뜨려 깨고 말았다.

‘이걸 어쩌나?’

아내는 무척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아내를 안심시킨 이다야는 고무장갑이 미끄러워 접시가 미끄러진 것을 발견했다.

‘고무장갑의 표면을 걸끄럽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다음날 이다야는 시장에 나가 표면에 걸끄러운 고무장갑을 찾아보았다.

표면이 걸끄러운 고무장갑이 아직 발명되지 않음을 확인한 이다야는 즉시 특허출원을 마치고 소량이기는 하지만 생산에 착수했다.

폭발적인 인기였다. 생산되기가 무섭게 팔려



해열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아스피린,  
이 약품도 순간의 착상이 탄생시킨 발명으로  
발명가를 세계굴지의  
제약업체 사장으로 끌어올렸다.



나갔다. 밀린 주문량만도 몇년은 생산해야 할 정도였다.

‘철공소보다는 고무장갑 공장이 낫겠다.’

이다야는 서슴없이 전업을 시도했다. 표면이 걸끄러운 고무장갑의 인기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다야는 어느 사이 갑부가 되어 있었다.

이다야가 크게 성공하자 걸끄러운 장갑의 새로운 용도를 알려오는 소비자도 줄을 이었다. 이다야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검토,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기도 했다.

첫번째는 어느 병원의 간호원.

‘환자들이 얼음주머니를 이마에 얹을 때 미끈거린다고 기분나빠하는데 이 장갑처럼 걸끄럽게 만들면 어떨까요?’

이다야는 즉시 생산에 착수,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간호원에게는 도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했는데, 간호원의 경우 자기 월급의 5배가 넘었다.

두번째는 이 간호원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

‘걸끄러운 고무장갑의 원리로 수술장갑을 만들고, 걸끄러운 강도를 낮춰 촉감이 좋은 콘돔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다야는 이 또한 생산에 착수, 또 다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의사에게도 도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했다.

세번째는 신문팔이 소년.

‘고무골무를 걸끄럽게 만들면 신문을 헤아리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크게 성공, 신문팔이 소년도 도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았다.

이 골무는 지금까지도 유행, 많은 서류를 취

급하는 관공서나 회사에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 다게우지의 삼푸

최근들어 공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역사의 뒷장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화학용 삼푸. 그러나 이 삼푸도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일본의 여류 중소기업인 ‘다게우지 고도에’를 중견기업인의 대열에 올려 놓았다.

다게우지는 양털 세척액을 제조·판매하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열성주부.

그녀의 양털 세척액 공장은 원료를 혼합하는 혼합기계와 혼합된 완제품을 담아 포장하는 몇 명의 공원이 전부. 그녀가 하는 일은 공장관리와 영업활동으로 눈코 뜰새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들이 돌같이 단단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을 발견한 다게우지의 머리속에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양털처럼 물로 된 세척제로 감는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양털 세척액의 성분을 분석해보았다. 세척력은 손색이 없었고 문제는 인체에 해로운 소량의 독성이었다.

‘독성을 제거하고 향료만 첨가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다음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문서적 속의 지혜만으로도 독성 제거 및 향료첨가는 가능했다.

삼푸의 발명을 알리는 기사는 극찬을 서슴치 않았고, 삼푸는 생산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다게우지가 중견기업인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 <王然中記>